

“ 인간의 패역과 하나님의 자비 ”

■ 이준윤 원로목사

인간의 극에 달한 악인의 패역상을 보고 한 시인이 탄식을 금치 못한다. 저들의 안중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벌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거기에 자기 마음에 아첨하는 ‘자궁’ 까지 했다.

창조주께서는 지혜와 선을 말하는 도구로 사람에게 입을 지어 주셨건만, 저들 악인은 그 입을 악과 거짓을 토하는 분화구로 악용하고 있었고, 낮에 악을 행한 사람도 밤에 침상에 들게 되면 자신을 반성하고 과오를 뉘우치는 수가 있는 법이거늘, 저들 악인은 참회는 커녕 저들의 침상을 더 큰 악을 계획하는 온상으로 삼고 있었다. 저들은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의해 피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좋아하여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다. 더구나 방관할 수 없는 일은 저들은 이러한 패역한 생각과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충동하여 저들의 동조자를 점차 확산시켜 간다는 사실이다. 안하무인격인 악인의 배신과 패역상을 보고 개탄함을 금치 못했던 시인은 주님의 존귀한 품성을 상기하며 찬양을 마지않는다. 악이 극에 달한 세상에서도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신망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복이다. 시인은 여호와와 인자와 성실에 감탄한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는 말은 악인의 패역을 초월하여 주의 인자가 존대하다는 뜻이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는 말은 인간의 불성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그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주신다는 뜻이다.

시인은 계속하여 여호와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찬송한다. “공의가 산과 같다” 는 말은 여호와 의 공의의 견고성과 엄위성, 불변성과 부동성을 나타내고, “판단이 바다와 같다” 는 말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의 깊이와 신비함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짐승도 보호하시고, 짐승도 필요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해 보이는 것까지도 보호하신다. 하물며 인간이라!

여호와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균등하게 분배하시고, 공기를 고루 할당하시며, 우로를 차별 없이 내리신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마시며, 벌써 멸절되었어야 할 인간들이 오늘까지 생존함도 바로 이 까닭이다.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자들의 세계관과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세계관을 말한 시인은 결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의인의 필연적인 기원을 들을 수 있고 시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과 의인이 의인으로 대접받는 사회라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오만한 악인들의 불손과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다. 악인의 재기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라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생각을 꺼리는 이유가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심판날에 구원 받는 이나 형벌 받는 이의 정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를 것이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받을 심판보다 견디기 쉬운 것이라 하셨다. 소돔의 형벌이 가버나움의 받을 벌보다 가벼울 것이라 하셨다. 두로 시돈 소돔의 백성들은 악한 자로 형벌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형벌보다는 쉬운 것이다. 심판날에 형벌에 차등이 있다. 가장 악한 죄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행한 것을 기록한 책들에 따라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구원도 간신히 볼 가운데서 구출 받은 듯과 같은 이의 구원도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게 전가되어 정죄하는 심판 없이 자비의 구원을 얻는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돌리자!

-한국장로신문 2018년 8월 11일 발체-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둘째 주일입니다. 새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새 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께 아래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1, 2부 예배는 더욱 경건하고 깊은 영성 가운데에서, 3부 예배는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한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청년부를 비롯한 서울교회 젊은 세대의 예배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3년 청지기 수련회가 2주간 찬양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헌신훈련을 주제로 총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30108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이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허미순(일본), 김낙형·오경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프, 린툼,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 ”

■ 사 40:27-31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임을 강조하는 소망 넘치는 말씀입니다. 포로 된 지 70여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꿈을 향해 전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1. 희망을 버린 사람들
 바벨론에 살았던 유다의 포로들 중에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도무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희망고문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망한 것이다.’라고 단정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아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0:2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징계하시거나 그 자녀들의 몰락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우리 미래를 절망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거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를 최악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때문에 지난날의 실수와 죄에 얽매이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미래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합니다.

2. 일하시는 하나님
 ‘아름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계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70년 뒤에 해방된다는 말씀만 믿고 기다렸는데 포로지에서 힘겨운 삶을 영위하는 그들은 이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한 메데 바사의 세력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 희망이 이루어지는 능력
 28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고 고백합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라고 권고합니다. 31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새 힘은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시편 121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산이란 가장 크고 든든하고 불변부동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산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이 발견한 도움은 그런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힘을 얻는 사람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삶의 역전의 힘이 되고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도	시 간	인 도	기도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서은석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서은석 장로
I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유충기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시 34:8-9...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 찬 송14(1, 4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다 함 께
 * 성시 교독31(시 68)... 다 함 께
 * 송 영 4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545... 다 함 께
 성경 봉독사 40:27-3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다 함 께
 봉헌 다 함 께
 * 봉헌송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다 함 께
 설 교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 손달익 목사
 * 찬 송354...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정				

예배로 부름시 34:8-9... 인 도 자
 * 신앙고백 다 함 께
 * 경배와 찬양 찬 양 팀
 기 도 말 은 이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교회 소식 인 도 자
 성경 봉독사 40:27-31...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 손달익 목사
 결단의 기도 다 함 께
 봉 헌 다 함 께
 * 봉헌기도 설 교 자
 * 파 송 찬 양 팀
 * 축 도 설 교 자
 * 후 주 찬 양 팀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찬 양 예 배

청지기 수련회(헌신훈련)

시 간	인 도	기도	시 간	인 도	기도
오후 4시30분	조원영 목사	임우택 집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84:10 인 도 자
 찬 송 21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찬 송 213 다 함 께
 성 경 고전 4: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말은 사람들” 박중순 목사
 * 찬 송 31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도	시 간	인 도	기도
I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박민숙 권사	II 오후 7시	김익환 목사	최금숙 권사

성 경 왕상 15: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회개하지 않는 역사” ... 손달익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신아령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김익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2,036명	479명	2,515명	468명	2,069명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모임

- 마리아전도회 월례회 / 8일(주) 오후 12시 30분 802호
- 장학위원회 모임 / 8일(주) 2부 예배 후 8층(식당)
- 한나전도회 임역원 모임 / 8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 사라전도회 월례회 / 8일(주) 3부 예배 후 602호
- 권사회 임역원 모임 / 11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802호
- 정기당회 / 11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402호
- 전도위원회 협의회 / 14일(토) 오후 4시 802호

알림

-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506호
비전2030 도고팀 : 주일 오후 1시-3시
-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06호
신혼가정부 : 주일 오후 12시 30분-2시
-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지기 수련회 강사 :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목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

결혼

- 정재은 군(경영석 장로, 박현영 집사의 장남)과 배인혜 양(유년부 전도사 배석범 목사, 임선화 사모의 삼녀) / 1월14일(토) 오후 1시 안동그랜드호텔 2층 그랑포레홀(054-851-9090)

장례

- 故 김영란 권사(8교구 조절기 안수집사의 부인 / 7교구 조종화 집사, 8교구 조형준 성도의 모친) / 1월2일(월) 별세, 1월5일(목) 천국환송예배